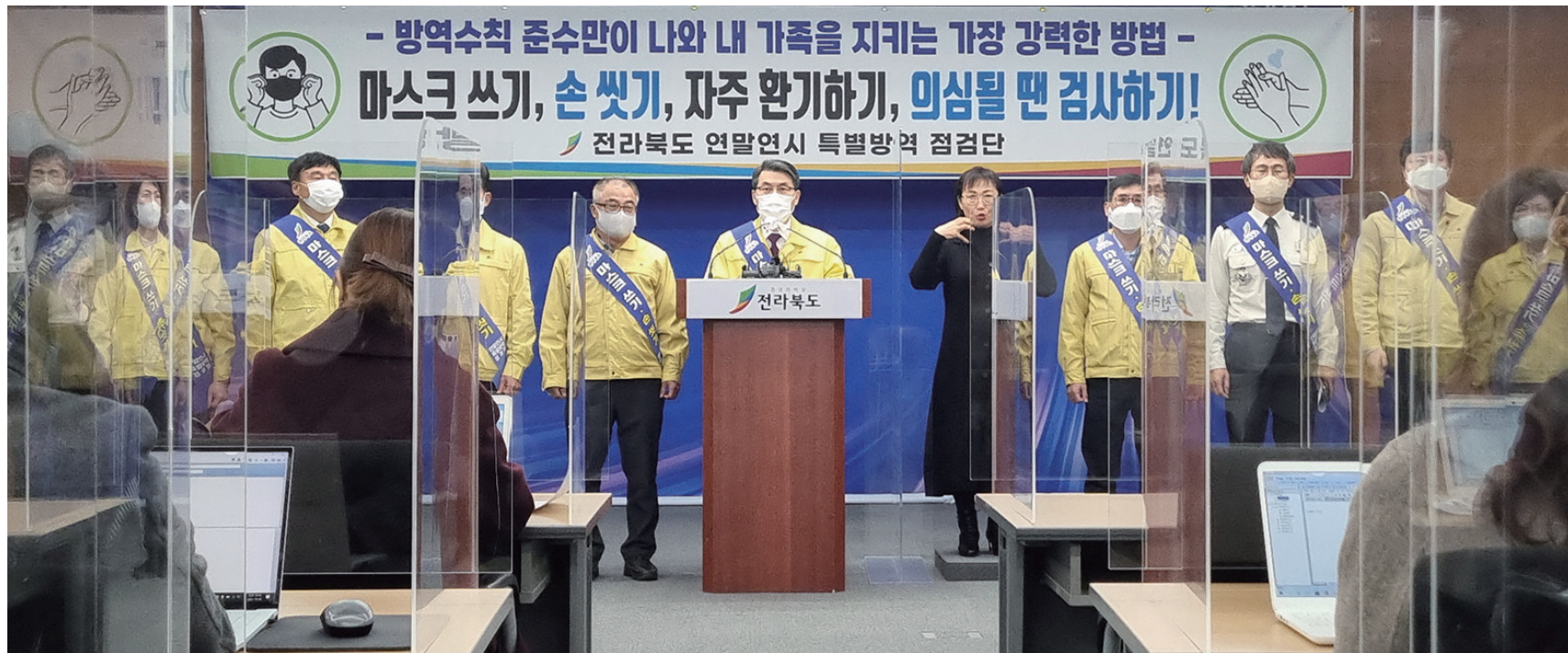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임과 만남 자체를 촉구하는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일일 확진자 100명 돌파... 방역붕괴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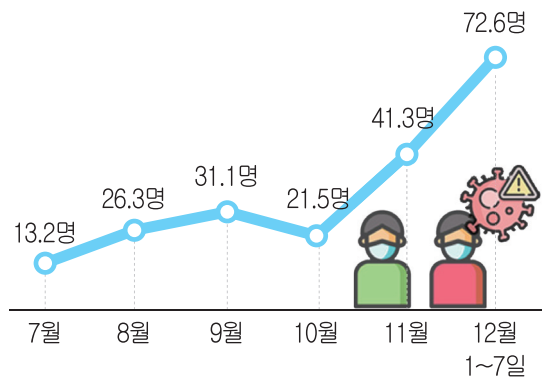
일상회복 후폭풍 역대 최대 병상 가동률도 한계치 임박
전북도 방역동참 긴급 호소
반전 못하면 거리두기 재개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코로나19 도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돌파했다.

전북도는 즉각,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며 방역 동참을 호소하고 나서는 등 비상을 걸었다. <관련기사 2면, 5면, 6면>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8일 긴급 대도민 호소문을 내고 "전날 하루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했고 도내 또한 역대 최대인 103명이 발생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에 임박하는 등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만큼 다시 한번 긴

■ 전북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장의 고삐를 당겨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유증연구가 급증할 연말 연시를 앞두고 모임 자체를 강조했다. 조 부지사는 "이번 연말 연시는 방역을 다시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일상회복을 지속할 것인지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모임과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에 동참한다면 일상회복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확진자 증가세를 반전하지 못하면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은 불가피하다"며 "백신

추가접종을 비롯해 소아 청소년 기본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내 가족은 물론 우리 이웃의 삶과 일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확산세 억제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조 부지사는 "현 위기상황 타개를 목표로 도와 시·군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민간단체와도 연대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실천문화운동 가두 캠페인 등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일 하루 도내에선 모두 103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8일 집계됐다. 지난해 1월말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이자,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론 전주 41명, 군산 16명, 김제 11명, 완주 9명, 익산 8명, 정읍 7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들은 어린이집발 집단감염에 휘말린 유아부터 교회 모임에서 감염된 구순 신도까지 다양했다. 평균 70%대를 보여온 병상 가동률은 이날 신규 병상 88개(총 811개)가 긴급 추가되면서 일시적으로 66%까지 낮아졌다. 이 가운데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100%를 기록해 비상이 걸렸다.

‘올해의 출판인’ 특별상에 김승수 시장

전주만의 독서문화 콘텐츠
특별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를 선언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내 출판인들로부터 대한민국 독

서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시장은 8일 서울 아مان티호텔에서 한국출판인회의 주최로 열린 ‘출판인의 밤’ 시상식에서 독서문화와 출판문화 진흥에 힘써 온 공로로 ‘올해의 출판인’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 시장은 전주를 삶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이자 가보고 싶은 책 여행 도시로 만들고, 전주만의 독서문화 콘텐츠와 특별한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해오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전주를 대표하는 책 축제인 ‘전주독서대전’을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열어 작가 강연과 공연, 전시, 학술토론, 독서체험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운

영했다. 올해는 5년 동안 100권의 고전(古典)을 함께 읽는 독서운동인 ‘고전 100권 함께 읽기’도 시작했다. 김 시장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삶의 중심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도서관과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삶이 다시 책이 되는 도시, 도서관 여행으로 시민과 여행객에게 사랑받는 인문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김승수 시장은 8일 서울 아مان티호텔에서 열린 ‘출판인의 밤’ 시상식에서 올해의 출판인 특별상을 수상했다. /전주시 제공

친환경 유기농업은 에이치에스그룹과 함께!

2022년 유기질 비료 신청안내

가축퇴비

고품질 입상 퇴비 1등급

혼합유기질

3.9-2.1-1.0+ 유기물60%

혼합유박

4.1-1.9-1.0+ 유기물70% 친환경목록공시

혼합유기질

3.9-2.1-1.0+ 유기물60% 친환경목록공시

HS Group

- 정부지원대상
- 유기농자재공시등록
- 농협품질규격!

비료문의 고객센터 : 063-544-2410 www.hsfamily.co.kr PEOPLE AND NATURE 사람과 자연의 기업